

지난주 침례 인수	2016년 인천 교회 나아갈 방향 모든 성도가 신성한 편신 안에서 부흥되어 하나님-사람 생활을 살고 열매 맺는 해	2016 침례 인수
0명		20명

인천 교회 기도 제목	몸의 요청 기도 제목
○ 올해 인수 목표를 이루게 하소서. ○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일으키소서. ○ 인천 교회 전체집회를 축복하소서(7/17주일). ○ 영피플집회(7/29~31)를 축복하소서. ○ 여름훈련 비디오집회를 축복하소서. ○ 목회자세미나를 축복하소서.	- 독일 및 유럽의 중동 난민들에 대한 복음전파 및 목양이 강화되게 하시며, 현지 통역자들을 얻으소서. - 주님의 사역을 위해 동역자들의 가족들과 건강을 돌보소서. - 성경진리사역원 교육관 신축을 순조롭게 하소서 - 아시아에서 주님의 움직임을 강화 하소서

◆ 교회소식

《인천 교회 집회 안내》 1. 자매 집회 : 7.14(목) 오전10시 연수동집회장소 2. 목회자 세미나 (갈라디아서 2차) ① 일 시 : 7.12(화) 오전 10시 ~오후3시 ② 장 소 : 학생센터 ③ 대 상 : 목회자, 복음전구, 성도들 ④ 회 비 : 30,000원(중식 및 교재비포함, 대학생 회비없음) 3. 인천 교회 전체 집회 ① 일 시 : 7.17(주일) 오전10시~오후12시20분 ② 장 소 : 공촌동 집회장소 * 어린이 집회 : 공촌동 집회장소 지층(5지역 담당) * 중고등부집회 : 공촌동 집회장소 지층 소집회소 4. 제 5회 영피플 집회 ① 일 시 : 7.29(금) ~31(주일) ② 장 소 : 춘천 아름다운 세상 ③ 대 상 : 중고등부, 대학생, 청년, 직장인, 봉사자, 학부모, 다음세대 관심있는 모든 지체들 ④ 회 비 : 중고등부, 대학생 30,000원 어른 70,000원 1박 2일 참석자 40,000원 ⑤ 신 청 : 각 지역 중고등부 봉사자 5. 2016 여름훈련 비디오집회(출애굽기) ① 일 시 : 7.6(수)저녁 ~ 8.14(주일)까지	② 장 소 : 각 지역별 * 실시간 집회와 비디오집회를 일원화하여 실시합니다. 6. 대만 고웅 교회내방(18명) ① 일 시 : 7.12(화) ~ 13(수) ② 접대장소 : 6지역 ③ 쉬임집회 : 7.12(화) 저녁 7시30분 7. 인천 전체 어린이 봉사자 집회 ① 주제 : 1) 어린이 봉사의 방향 2) 어린이의 합당한 인성조성 3) 봉사자 쉬임 ② 대상 : 전체 어린이 봉사자, 어린이 봉사에 관심있는 형제,자매 ③ 장소 : 인천교회 5지역 산곡동 집회장소 ④ 시간 : 7.17(주일) 오후 3시~6시 《전국 및 해외 집회 안내》 1. 2016년 하반기 전국 전·현직 교직원 쉬임집회 안내 ① 일 시 : 8.13(토)~15(월) ② 장 소 : 성경진리사역원 ③ 신청금 : 숙박 81,000원(2박3일), 52,000원(1박2일), 출퇴근 53,000원(식사 4회 포함) (국민은행 658101-01-211780 인천교회) ④ 신 청 : 8.2(화)까지 집사실로 신청 《기타 사항》 1. 이번주 아침부흥 진도 : 2016년 봄 장로 훈련 메시지6
---	---

◆ 2016년 6월 복음에 이르는 교통 헌금과 심일조 현황

구분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5지역	6지역	7지역	합계
	헌수 금액	헌수 금액	헌수 금액	헌수 금액	헌수 금액	헌수 금액	헌수 금액	헌수 금액
복음교통	8 510,000	21 1,740,000	32 2,970,000	14 870,000	20 1,190,000	11 470,000	2 150,000	108 7,900,000
심일조	20	27	32		22	19	13	165 35,248,000

◆ 지난주 집회 인수 현황 (2016.06.27(월) ~ 2016.07.03(주일))

지역	1지역 (73명)	2지역 (94명)	3지역 (104명)	4지역 (124명)	5지역 (101명)	6지역 (51명)	7지역 (25명)	계
그 룹	학 의 인 신 청 년 1 2	신 청 년 1 2	신 청 년 1 2	신 청 년 1 2	신 청 년 1 2	신 청 년 1 2	신 청 년 1 2	신 청 년 1 2
인수목표	120	157	144	154	146	82	40	803
주와상	20 15 17 9 9 3 11 14 13 11 9 15 17 4	27 13 21 26 17 16 8 10 14 20 9 14 8 12 13 29 27 26 19 14 14 12 11 14 11	27 13 21 26 17 16 8 10 14 20 9 14 8 12 13 29 27 26 19 14 14 12 11 14 11	27 13 21 26 17 16 8 10 14 20 9 14 8 12 13 29 27 26 19 14 14 12 11 14 11	27 13 21 26 17 16 8 10 14 20 9 14 8 12 13 29 27 26 19 14 14 12 11 14 11	27 13 21 26 17 16 8 10 14 20 9 14 8 12 13 29 27 26 19 14 14 12 11 14 11	27 13 21 26 17 16 8 10 14 20 9 14 8 12 13 29 27 26 19 14 14 12 11 14 11	27 13 21 26 17 16 8 10 14 20 9 14 8 12 13 29 27 26 19 14 14 12 11 14 11
거 도	7 7 6 1 1	3 6 4 3 3	3 3 3 3 3	11 5 10 11 8	8 6 3 3 4	10 5 7 6 2	8 14 7 9 8	6 5 5 6 7
그 룹	7 7 6 12 6 5 6 5 5 7	6 5 6 5 5 7	6 5 6 5 5 7	6 5 6 5 5 7	6 5 6 5 5 7	6 5 6 5 5 7	6 5 6 5 5 7	6 5 6 5 5 7
아침부흥	9 8 8 7 3							
어린이	11	18	13	21	14	5	8	90
아빠모임		8	11	5			5	29
중고등부	8	1	9	13	11	9	3	54



인천 교회 소식

WEEKLY LETTER OF CHURCH IN INCHEON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2016. 07. 10. 16-28

☎ 032-566-0190 / FAX 032-567-0190
E-mail : triune@nate.com

집사실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94번길 40
홈페이지 주소 : www.icchurch.or.kr

2016년 봄 장로 국제훈련 집회 메시지6

봉사의 기초 - 제단에서 온 불

고전3:12-13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그날에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그 일을 밝혀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불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 를 검증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불을 보고자 한다. 모든 봉사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다른 불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이자 제사장들로서 사역하기 위해 헌신된 나답과 아비후는 주님이 명하시지도 아니한 다른 불을 드렸으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태워버렸다(1-2절),

I. 항은 번제 단에서 취한 불로 주 앞에서 살라져야 했음

레위기 16장 12절은 항이 번제 단에서 취한 불로 주 앞에서 살라져야 했다고 말한다. 두 제단, 곧 분향단과 번제단이 서로 연결된 것은 바로 이 불에 의해서였다. 번제단은 희생 제물들을 위한 것이었다. 분향단은 향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불이 이 두 제단을 연결시켰다. 모세 오경에 따르면, 늦 제단 위의 모든 제물을 태우는 이 불은 하늘로부터 왔다(레 9:24, 대상 21:2, 대하 7:1 참조). 그것은 사람에게 의해 시작된 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었다. 그 불은 임한 때로부터 결코 꺼지지 않았다. 그 불은 항상 매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탔다(레 6:9). 그 불은 거룩한 불이었으며 다른 불이 아니었다.

II. 번제 단 위의 불은 모든 천연적이고 소극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 버림

번제 단 위의 불은 모든 천연적이고 소극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 버린다. 그것은 모든 것을 태워 재가 되게 한다.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나 먼저 제단에서 신성한 불로 태워져야 한다. 신성한 불로 제단 위에서 불태워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 열납 될 것이다. 이처럼 향을 분향 단에서 하나님 앞에 불태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필요하다. 모든 천

연적이고 소극적인 것들을 태우는 이러한 신성한 불이 우리의 봉사를 위해 필요하다.

III. 다른 불은 천연적인 열심을 상징함

다른 불은 십자가로 처리되지도 않고, 부활 안에도 있지 않은 천연적인 열심을 상징한다(레 10:1).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열심이 십자가로 처리 받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강조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부활 안에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다름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뜨거움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순수한 것이든 불순한 것이든, 그것은 여전히 천연적이다.

IV. 제사장의 봉사에서 다른 불은 하나님 앞에서 사망의 원인이 됨

제사장의 봉사에서 다른 불은 하나님 앞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와 명하지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고 말한다. 아마도 아론의 두 아들은 선한 마음, 곧 선한 의도로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불에 타서 죽게 되었다.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들 두 제사장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오늘날의 제사장들이라고 말해야 한다. 오늘날의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바를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데에서 선한 마음과 선한 의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잘못된 것을 드린다면, 이것이 우리의 사망의 원인이 된다. 이것은 어떤 심각한 죄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각한 것이다. 이 사망은 주로 영적인 의미에서의 사망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가 천연적인 열심으로 섬길 때마다 이것은 우리의 영에 사망을 가져온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천연적인 방식으로 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떠한 종류의 천연적인 봉사이든 그것은 우리의 영에 사망을 가져온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천연적인 뜨거움, 곧 천연적인 열심으로 봉사한다. 그것은 십자가로 처리 받은 어떤 것이 아니며 전혀 부활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과거에 교회 안에는 주님을 섬기는 데에 열렬했던 몇몇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다. 점차로 그들이 봉사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져왔으며 주로 그 자신들에게 사랑을 가져왔다. 그들은 그들의 영 안에서 그들의 봉사하는 일로써 자신들을 죽였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봉사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다른 불로 인해 초래되는 사망의 참된 의미이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봉사해야 하고 기능을 발휘해야 하고 우리의 한 달란트, 곧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함을 지적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천연적인 방법, 곧 우리의 뜨거운 열심으로 봉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영 안에서 뜨겁기를 원하시고 차갑거나 미지근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는 영 안에서 뜨거워야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뜨거워서는 안 된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바울은, 『영 안에서 불타서 주를 섬기라』고 말한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안에 있는 어떤 뜨거움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다른 불이며 , 이것은 사랑을 가져온다.

V. 제사장들은 그들의 천연적인 애정을 통제해야 하며, 하나님의 거룩에 의해 정죄 받아 희생된 사람들 중 정해서는 안 됨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아론은 잡자코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에 의해 정죄 받아 죽임당한 그의 두 아들을 위해 슬퍼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레 10:3, 6). 이것은 제사장들은 그들의 천연적인 애정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의해 정죄 받아 희생된 사람을 동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론은 아버지로서 동정하지 않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그에게는 그의 천연적인 애정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제사장의 봉사에는 천연적인 열심이 거절되어야 할 뿐 아니라 천연적인 애정 또한 통제되어야 한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의 모든 사람은 제사장 체계에 속해 있는 제사장들이다. 모든 제사장들은 그들의 천연적인 애정을 통제해야 하며, 하나님의 거룩에 의해 정죄당하거나 죽임당한 어떤 사람도 동정해서는 안 된다. 반제단 위의 불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한다. 밤낮으로 단 위에서 불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었다. 그러므로 두 아들을 삼키기 위해 나온 불은 하나님의 거룩이었다.

레위기 10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천연적인 것들-천연적인 뜨거움인 천연적인 열심과 천연적인 애정인 천연적인 동정-을 본다. 둘 다 거절되어야 한다. 우리는 천연적인 열렬함을 가져오거나 우리의 천연적인 애정을 발휘하여 어떤 천연적인 사람들이라도 동정해서는 안 된다.

VI.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은 아마도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을 것임

레위기 10장에 따르면,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은 아마도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을 것이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직후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하셨다. 8절과 9절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랑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고 말한다. 논리적인 독자라면 누구나 아론의 두 아들이 술 취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드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너무 많은 포도주를 마셨다.

성경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세상적이고 천연적인 것들이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과도한 누림을 상징한다. 달리 말해서,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을 과도하게 누린다면, 이것이 항상 우리를 취하게 한다. 우리가 술 취하게 될 때, 우리는 흥분되며 절제력을 잃고 제한 없이 일들을 하게 된다. 아론의 두 아들은 술 취하여 흥분되어서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제한 없이 어떤 일을 행했었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그들이 주제념은 방식으로 다른 불을 드렸음을 의미한다. 다른 불을 드린 것은 주제념은 죄였다. 그들은 감히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을 하려고 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거스른 주제념은 어떤 것이었다.

사람들은 주제념은 일들을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것을 지나치게 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취해 있다. 제사장들이 술 취할 때, 그들은 거룩한 것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며(10:10),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된다(11절). 우리가 술 취함으로 인해 분별력을 잃을 때, 우리는 통제받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히 다른 사람들이 통제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된다.

제사장들에게는 이중의 기능이 있었다. 하나의 기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제사장의 기능 또한 이 두 가지 기능으로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다.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는 일에서 우리는 우리가 드러야 할 것과 드러서는 안 될 것에 관한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분명한 분별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체현에 의한 배움이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술 취하여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되며 제사장 직분의 기능을 잃어버린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리는 것에 포함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이상이 교회를 봉사하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한다.

〈봉사에 대한 기본 공과 제14장에서 발췌〉

복음 전파

롬1:14 나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다 빛진 사람입니다.

세 가지 긴급한 일

우리는 교회가 건축되려면 반드시 한 면에서는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한 면에서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얻은 사람들을 붙들어 주며, 또 한 면에서는 나가서 잃어버린 사람들, 즉 오랫동안 집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세 가지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말한 것들은 공허한 말이며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우리는 장로 집회에서 형제들에게 집회에 오지 않는 사람이 총 몇 명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바빠서인지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간 것인지 또는 죄 가운데로 빠진 것인지 조사해 달라고 건의했었다. 우리는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 상황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현실적인 상황은, 우리가 여기에서 일을 해서 백 명을 이끌어 올지라도 남아 있는 사람은 열 명, 여덟 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며 노력하지만, 열매가 없고 아무도 그 원인을 찾지 않는다. 이것은 옳지 않다. 결국, 동역자와 장로들은 왜 우리에게 온 사람들이 남아 있지 않은 지 잘 연구해 보아야 한다. 과거에 한사람이 말하고 모든 사람이 정규적인 집회는 위기의 신호이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끌려가기를 원하지 않고 이곳에서 헛수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동역자와 장로들의 책임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우리 각 사람의 책임이다.

복음의 빛을 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마치 옛날에 야경꾼이 밤에 사람들에게 깰 때가 되었다고 딱따기를 치며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 우리가 대만에서 주님의 회복의 증거가 된 지 이미 삼십육 년이 되었고, 어쨌든 주님은 우리에게 풍부하게 주셨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교통이 편리한 이 작은 섬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참으로 주님께 면목이 없고 또 이 땅의 주민들에게 빛을 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대만의 동포들에게 복음의 빛을 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

처음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서양 선교사들과 우리를 비교한다면, 그들의 그 진취적인 영은 우리보다 천 배나 강했다. 다만 그들 한 무리가 중국에 옴으로써 밝고 제자리걸음을 하며 깨지지 않은 견고한 문이 열렸는데, 그들의 발자취들은 참으로 감동적이고 눈물겹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영이 부족하며, 마치 꽃가마에

앉아 복음을 전하는 것 같다. 우리는 정에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꽃가마를 타고 싸우러 간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해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섬의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된다.

해명할 수 없는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시킨 후에 그들을 방치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도 변명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태어나면서부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나면서부터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다. 주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날마다 죽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며 멈추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해 주었다. 숨을 쉴 기력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결코 주님의 일이 무너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깨닫고 주님의 회복의 길을 감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는 자신의 헌신조차도 책임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장래를 포기하고 세상으로부터 끊어진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헌신을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분의 회복을 사랑하고, 그분의 일을 사랑하고, 기꺼이 자신을 드린다. 주님께서 오늘날 원하시는 것은 살아 있는 회복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상태와 기독교와 천주교의 상황을 볼 때, 주님께서 만족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에 영성과 생명의 성장을 가장 중시한 이들이 바로 신비주의자들이고, 이들 중에서 앞선 사람은 귀욤 부인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후대가 없다.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은 신비주의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길을 쫓던 사람들도 후대가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비주의를 따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가 아무리 훌륭했다고 해도 한 대(代)에서 끝났다.

신비주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준다고 말했다. 그들의 구호는 매우 영향력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후대가 없었다. 신비주의는 먼저 천주교 안에 있다가 후에 개신교의 윌리엄 로(William Law)에게로 이어져 실용주의가 되었다. 그 다음은 앤드루 머리이고, 그 다음은 제시 펜 루이스이다. 오스틴 스팅스가 루이스 여사의 젊은 동역자였지만, 루이스 여사에게 동의하지 않고 결국 나누어졌다. 그 후 그들도 끝났다. 그러므로 이 길도 갈 수 없게 되었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탁상공론해서 는 안 된다.

〈복음의 확산과 교회의 행정 ; 제3장에서 발췌〉